

[종합·해설]

“불필요한 긴장·대결 조성 도움 안된다”

北 이산상봉 중단 선언 ■ 지역민 반응

당혹·실망속 “대화통로 열어 봐야” 민간차원 지속적 교류·지원 촉구

북한이 19일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변회소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광주·전남 남부교류 단체와 북한문제 전문가, 시·도민들은 당혹감과 안타까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미사일 사태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라도 긴 안목을 갖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에 비닐은실 건설과 농약·비료지원 등의 사업을 펴고 있는

같은 이지만 남북 당국간의 갈등이 민간 교류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 오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의 통로를 계속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족 공조의 수단이 막히게 된대 대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설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의 분차원에서라도 긴 안목을 갖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에 비닐은실 건설과 농약·비료지원 등의 사업을 펴고 있는

정부 설부른 대응 자제를 ‘일회성 상봉은 한계’ 지적도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운영 대표는 “민족적, 인도주의적 사업이 어떻게 중단 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북북 문제를 놓고 국론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 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긴 호흡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봉지원팀장도 “인도주의적 사업을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는 북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연료한 이산가족들이 상봉이 재개되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재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대변인은 “매우 안타

결과가 나올 않았다”며 “남북간 서신 왕래와 고향방문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양의 감시 하에 만나는 것은 진정한 상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일목 금강산여행사 대리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중단 사태는 빛지 않을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은 양과 직결된 문제여서 북측이 선불리 중단했을 경우 재정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서해교전 등 남북간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을 때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결구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송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안보관련 부처 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이종석 통일, 반기문 외교, 윤용관 국방장관, 김승규 국정원장과 청와대 이병안 비서실장, 송민순 안보실장, 변양관 정책실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결구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 노대통령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제 “관련국과 정보공유 근본적 해결 방안 강구 北 미사일발사 군비경쟁 촉발 잘못된 행동”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후속 대책과 관련,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구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이날 오후 발표된 북한측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발표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특히 우리가 처한 입장에

비취 유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송민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인 당면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인식을 갖고 관련부처들이 대책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잘못된 행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결구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이산상봉은 인도주의 문제 정치현안과 연계해선 안돼”



소 실망스럽다. 인도주의 사업은 정치문제와 연계시켜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북측의 중단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화상상봉을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이 문제를 장관회담에서 (남측이)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전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으로, 이를 장관회담에서 재합

의할 필요는 없다. (북측이 남측의) 회의를 구실로 (상봉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인도주의적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이산상봉 전망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정치문제와 연계해서는 안되지만, 6자회담이 잘 풀리면 자동적으로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수렁에 빠지는 것

을 것이다. 잠시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제거하면서 인도주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차원에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사업은 계속한다.

“북한에 어떤 대응할 것인지.”

▲감재언 위원장의 편지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곧 답신할 것이다. 인도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북측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으로부터 이산상봉 관련 부정적인 반응 있었다.”

▲감재언 위원장의 편지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곧 답신할 것이다. 인도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북측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으로부터 이산상봉 관련 부정적인 반응 있었다.”

▲감재언 위원장의 편지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곧 답신할 것이다. 인도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북측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어떤 대응할 것인지.”

▲감재언 위원장의 편지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곧 답신할 것이다. 인도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북측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으로부터 이산상봉 관련 부정적인 반응 있었다.”

▲감재언 위원장의 편지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곧 답신할 것이다. 인도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북측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완상 총재 일문일답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사진)는 19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는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재는 또 “북측에 곧 답신을 보낼 것”이라며 남북 간 인도주의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재의 일문일답.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문제다. 이는 정치 현안과 연계해 풀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 북한 감재언 위원장의 전문문에 다

<p>산행안내</p> <p>▲광주거북이산악회 설악산 백담사계곡 무비산행 7월22일(토) 20시 20분 연주체육관 21시 무등경기장 정문 건너편 출발 T.011-602-3263, 017-602-0077</p> <p>▲청담산악회 홍도-흑산도 1박2일 7월22일(토) 06시 함남 무비산행 4시 출발 T.011-602-4972</p> <p>▲광주등산클럽 부산 장산 해운대 해수욕장 7월22일(토) 07시30분 광주역 페미리마루 07시40분 남해해관후문 출발 T.011-604-9921</p>	<p>▲광주나사오산악회 설악산 12산 너굴계곡-대청봉 무비산행 7월22일(토) 21시 광주역출발 http://cafe.daum.net/gywanosamp T.062-525-7223</p> <p>▲광주도요산악회 대야산 (능바위-용추계곡) 7월22일(토) 08시 광주역, 08시10분 문예회관 후문 출발 http://cafe.daum.net/gywanosamp T.011-608-4267</p> <p>▲달성산악회 홍도-흑산도 2박3일 7월22일(토) 06시</p>	<p>30년 백운도타리06시 광주역 출발 T.011-605-3477</p> <p>▲길벗산악회 지리산 당일종주(삼재, 천왕봉, 죽산리) 7월23일(일) 03시 연주체육관(동광주출발) 출발 T.011-601-6944</p> <p>▲광주태일산악회 포함 내연산-황보봉 7월23일(일) 06시 구도정의회 앞 출발(다음카페:광주태일산악회) T.011-609-5547</p> <p>▲광주한길산악회 영월 백운산-동강리(프론트) 7월23일(일) 00:00시 광주역 출발 T.222-3253, 010-7619-0559</p> <p>▲광주백호산악회 영선산, 금위산 7월23일(일) 07시30분 문예회관후문 출발(다음카페:광주백호산악회) T.010-9866-8959</p> <p>▲비두리산악회 지도 회중산(묘사해수욕장) 7월23일(일) 07시30분 광주역 출발 T.011-9614-0879, 011-640-0871</p> <p>▲삼각산악회 원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7월23일(일) 08시 무비산 88레니스장안 출발 T.011-644-2730</p> <p>▲솔잎산악회 진도절도(동남) 남광산,남갑해수욕장 7월23일(일) 07시 30분 광주역 출발 T.011-608-7627, 011-605-5034</p> <p>▲해오름산악회 원도 상황봉(명사십리)해수욕장 7월23일(일) 07시 대</p>	<p>인동 신흥회관출발 T.062-369-9491, 011-601-8815</p> <p>▲광주산악회 여수 금오도 대부산 7월23일(일) 07시 대인관광(동광주출발) 출발 T.019-499-1405</p> <p>▲광주자연보존산악회 만수산 대천해수욕장 7월23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정문 건너편 출발 *cafe.daum.net/jagsan T.016-608-3804, 016-874-2900</p> <p>▲오산회(지리산) 별재, 만복재, 지리산은선 7월23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T.011-641-0254</p>	<p>▲울타리산악회 강남 힐튼군 가야산 7월23일(일) 08시 백운등 국제호텔출발 T.011-601-0132, 010-5500-3598</p> <p>▲청운산악회 영선산 금조각공원 청원리(부랜드) 7월23일(일) 08시 백운도타리(광주역,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05-3477</p> <p>▲명문산악회 경남 하동군 수곡폭포 7월24일(월) 07시 송정공원(광주역,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44-6605, 017-589-7800</p> <p>▲팔성산악회 거창 기막산 용추계곡 7월25일(화) 07시40분 풍유출발 T.011-605-3477</p>	<p>백운도타리,문예회관후문 경유출발 T.011-605-3477</p> <p>▲청록산악회 전북 영주 일출군 오봉산 7월26일(수) 08시 광주교원공제회관(문예회관)후문 경유출발 T.011-616-5917</p> <p>▲광주산악도요산악회 경북 황송(주왕산) 7월29일(토) 05시30분 무등경기장후문출발 http://cafe.daum.net/gywanmountain T.011-605-3477</p> <p>▲오산회 인도네시아 최고봉(원자나 화산) 3,725m, 바루르 화산 1,710m(드레킹 및 관광) 7월 8일 3일(목) 출발 *신청마감:7월 18일 T.011-610-5735</p> <p>▲다음카페(사)오산도요산악회 원도 명사십리해수욕장 8월6일(일) 07시 남광주하동교원(광주)경유출발 T.011-620-2002</p>
--	---	---	---	---	---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30만원부터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채원장 직접시술관리

심는가발 탄생!!

심는 가발이란 인체 두피에서 모발이 한기막 한기막 자란 것처럼 보이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올백도 OK)따라서 가발머리도 스포츠형으로 맞출이 가능합니다.

전남지역 지점모집
목포, 순천, 여수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최저가 30만원 *여성무모(無毛)전화 한봉화로OK!
*화상 두피합물들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로전화 080-323-5858
E-mail:daesangabal.co.kr

1997년 CAT 플랜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채원장 직접 시술합니다.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30년 경력인 이용자가 직접착용시술 컷트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시내 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올백스타일, 처진, 수염, 시우나, 축구, 헬스, 티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가발남녀맞춤예술원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국제호텔 뒤(보훈병원 입구) 호원병원 남구청
대표전화: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수 채 011-607-5330

최신 출시된 SONY 의 명품들...

2006 소니 핸디캠 여름보상축제
기간: 2006년 7월 31일(월)~8월 31일(목)

핸디캠 보상금액

- HC3 15만원
- DVD905 13만원
- SR100 13만원
- DVD805 10만원

*브랜드와 구매 연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계신 캠코더 또는 동영상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휴대폰 제외)모델을 소니 핸디캠의 최신 모델(HC3, SR100, DVD905, DVD805)로 보상 교환해드립니다.

DCR-DVD805 DVD로 간편하게!
DCR-SR100 HDD로 21시간 녹화!
DCR-DVD905 DVD로 쉽게!
HDR-HC3 HD로 선명하게!

DCR-DVD905
3.5인치 대형화면으로 최첨단 기능을 만끽한다!
400만 화소급 정지영상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핸디캠

VAIO 시리즈 노트북
이상적인 모바일 리더를 위한 최적의 퍼포먼스!

T5 시리즈
매혹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당선을 유혹하는 버티컬 슬림 사이버샷!

W 시리즈 DSC-W70
흔들림에 강하고 사용이 간편한 고감도, 스테미너 사이버샷

선물 상형 T5구입시 ▶ 512MB 메모리 스틱+가방 증정
선물 상형 W70구입시 Marin Pack 증정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 [062]522-2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 [062]514-3000

보급방송 ● SONY 광주전시장
도형 임동오거리 정헌중
나산블로그 ●